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확대 진안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진안군, 시행 1개월 맞아 대상자 발굴·홍보 등 사업 추진 속도

진안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 1개월을 맞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 1개월을 맞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65세 미만 지적·뇌병변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체계이다.

진안군은 지난 1월 통합돌봄 TF팀 신설 및 정담 인력 배치를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3월 말 정식 팀으로 개편해 △내부 추진체계 구축 △유관기관 홍보 및 간담회 △전 군민 대상 홍보와 사업 내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사와 장기요양 등급자 등 우선돌봄 대상 어르신의 의료·요양 필요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영양 도시락, 가사 지원, 방문의료 본인부담금 지원, 안심주거 환경개선사업 등 9개의 지역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7개 기관과 8개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실행계획서를 수립

해 1월 말 통합지원협의체 심의를 마쳤으며, 2월에는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은 읍·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를 신청받으면, 읍·면 담당자가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하고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4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인구 1만 명당 통합돌봄 신청자는 전국 평균 8.1명 수준이나, 진안군은 44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은 법 시행 2주 전부터 사회복지과장과 함께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해 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을 요청했으며, 보

건소 직원 소통의 날에는 읍·면 보건지소 팀장과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총 6회의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총 45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조사를 완료한 25명에게 91개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 중이다. 이 가운데 12명에게는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과 가사·식사 서비스, 안심주거 지원 등 지역특화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4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인구 1만 명당 통합돌봄 신청자는 전국 평균 8.1명 수준이나, 진안군은 44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과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9대 의회 회기 종료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가 지난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삼일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미옥)는 「진안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14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명진)에서는 「진안군 에너지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델 로컬브랜딩 연계 위계이션 발리자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사업부지의 안정적 사용 조건 마련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15일부터 16일까지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장 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17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2026년 도민채전 시설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9백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18% 증가한 5,699억 4천 4백만 원을 확정했다. 이어,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20일부터 22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며 복지·안전·환경·경제 등 주요 분야의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진안군의회는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와 추가 공모사업에 진안군 포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호·섬진강 청정 수질 사수

진안군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용담호·섬진강 수질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군은 공공 하수도 미설치로 생활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마을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및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공공수역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4월 준공된 사업은 총 2개 지구로 △진안읍 정곡리 진안(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 △삼전면 구룡리 금당·세동마을 일원의 구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개인 정화조 방식에서 벗어나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하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의 수질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어린이날 기념 반딧불이 큰잔치

무주군, 5월 5일 기념식·먹거리·체험 부스 운영

무주군이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등이 후원하는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반딧불이 큰잔치'가 반딧불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큰잔치는 △태권도 시범단 공연 △가년식 △체력 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체험 마당에는 주먹밥·아이스크림·닭꼬치·붕어빵 등의 간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가 운영된다.

향수와 목욕재·비즈공예 팔찌·양말дук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

는 '만들기 부스'와 인생네컷·다트 활쓰기·태권도·장애인 인식 개선·무주역사이야기 등과 만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설치된다.

최복미술관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엘리스 나비 만들기·바다 분필화 그리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가 운행된다.

1호차는 오전 9시 20분 무풍 아침해 지역아동센터를 출발해 9시 40분 설천 터미널을 경유하고 2호차는 9시 30분 안성파크 주차장을 출발한다.

귀가 버스는 1~2호차 모두 오후 2시 예체문화관 주차장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반딧불이 신비탐사' 6·9월 상설화... 탐사 횟수 확대

무주군은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6월과 9월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상설화한다.

지난 24일 군에 따르면, 신비탐사는 반딧불이 서식지로 직접 보러 가는 상품으로, 그동안은 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 기간에만 운영해 왔다.

프로그램 상설화로 탐사 횟수가 지난해 12회에서 올해 25회까지 108% 확대된다.

현재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으로 1만원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1박 2일 생태체험, 반디캠핑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시즌제로 전환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탐사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54명 입국

진안군은 지난 24일 업무협약(MOU) 체결국인 필리핀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54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80명 중 1차인 54명으로 진안군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 강당에서 운영주체인 진안군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및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고 진안군외국인원의 협조를 받아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각 조별로 6개의 공동숙소에 배치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농업(진안군 농업, 배운농협, 부귀농협)에 신청하고 일당 98,000원(8시간 근로, 점심 근로자 지원)을 입금하면 선착순으로 배정해 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시기관 '나만의 구급' 자체 구축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진리북도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 현장 응급처치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지원 시스템 '나만의 구급'을 자체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시스템은 긴박한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인공지능의 실시간 조력을 받아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나만의 구급' 시스템은 출동대원의 역할에 따라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 구급대원에게는 환자의 활력징후와 의식 상태에 따른 정밀한 처치 흐름 및 중증도 분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며, 구급차 공백 시 먼저 출동하는 펄블런스 대원들에게는 초기 평가와 기본 처치, 인계 준비 등 단계별 필수 조치 사항을 상세히 가이드한다.

소방서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원 개개인의 경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판단 편차를 줄이고, 현장 처치의 난락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 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